

經濟學科의 문제점과 교육 방향*

金 秉 柱

(西江大 經濟學科)

1. 經濟學科의 特性과 教育目標

經濟라는 낱말을 사전에서 찾아 보면 ‘經’은 ‘다스리다’라는, ‘濟’는 ‘건지다’(빈곤이나 危難에서 구제하다) 또는 ‘맑고 성하다’라는訓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經濟는 經世濟民, 經國濟民의 略字라 한다. 이의 뜻은 나라를 다스려 백성을 구제하는 일이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財貨를 획득하고 사용하는 一切의 行爲, 또는 節約·節儉을 뜻한다. 이는 좁게는 個人的 行動 및 生活精神, 넓게는 國家를 다스리는 基本的 精神을 함께 포함하게 된다. 經濟學科의 存在意義는 결국 이같은 基本的 精神을 바탕으로 教育이 授受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해방 후 1946년 經濟學科가 몇몇 대학에서 문을 연 후 '50년대의 공백기를 거친 다음 '60년대 경제의 高度成長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人材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經濟學者 또한 정부의 經濟政策 樹立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이에 따라 현재는 전국의 각 대학마다 經濟學科가 없는 곳이 없을 만큼 量的 擴大 내지 質的 向上을 거듭하여, 여타 어느 學科보다 發展의 速

도를 높여 왔던 것이다. 經濟學은 때로는 家計, 企業 등의 微視的 立場에서, 때로는 사회 전체의 巨視的 立場에서 經濟問題의 解明과 改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理論으로서의 經濟學은 經濟現象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주요 관계를 抽出하여 反證可能한 命題를 假說로 設定하고 이를 經驗資料의 計量 技法을 통하여 檢證한다. 한편 政策 측면의 經濟學은 바람직한 經濟狀態를 이끌어내고자 하며 여기에는 불가피하게 價値判斷 問題가 개재한다. 價値判斷의 問題는 궁극적으로는 政府나 國會에 의해 政治的으로 결정되는 성격을 지닌다. 경제학은 이와 같은 政策決定에 있어서 目的과 手段간의 有效性을 높일 수 있는 科學的 分析 技法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經濟學科의 教育目標은 학생들로 하여금 總體的인 社會問題의 認識과 더불어 그 解明을 위해 科學的 技法 및 分析手段을 습득케 하는 데 그 골격을 두어야 한다. 물론 經濟學 教育뿐만 아니라 모든 學問의 궁극적 교육목표가 학생들로 하여금 良識있는 價値判斷을 할 수 있는 素養과 知識을 함양하는 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사회에서 ‘經濟’學科에 대한 인식이 취적

* 이 글은 韓國大學教育協議會의 지원하에 ‘경제학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수행한 공동 연구자들의 견해가 종합된 것으로, 筆者 자신의 獨自的인 見解와는 다소 다를 수 있음을 밝혀 둔다.

을 쉽게 할 수 있다거나, 생산을 늘리는 데 있어 그 수단을 가르쳐 준다거나, 일확천금을 실현하는 방법을 전수하는 學科로 흔히 오해되고 있다.

각 대학에서 추구하는 經濟學科의 教育目標을 보면, ① 현대 경제 이론을 바탕으로 제반 經濟問題의 파악과 해결을 위한 能力과 知識을 습득케 하고, ② 合理的이고 창의적인 사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資質을 기르도록 지도하여, ③ 각각의 취향에 따라 정부 기관·금융 기관·각종 기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는 專門人力을 양성하고, ④ 國家·社會가 성장·발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결국 經濟學科의 教育目標은 경제 효율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에 입각한 民主的인, 나아가 이론과 실재를 겸비한 냉철한 두뇌와 뜨거운 가슴을 지닌 경제 학도를 양성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요구하는 이코노미스트를 배출하는 데 있다.

2. 經濟學科의 現況과 問題點

1) 經濟學科의 現況

1990 학년도 신입생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經濟學科를 두고 있는 大學은 전국 72개 대학에 달하며, 5,501 명의 학생과 약 320 여명의 교수가 있다. 이는 오직 '經濟學科'라는 이름의 學科만을 대상으로 파악한 것이며, 經濟學科 앞에 수식어가 붙은 資源經濟學科, 農業經濟學科, 地域經濟學科, 國際經濟學科, 産業經濟學科 등을 포함하던 이 숫자는 75개 大學에 5,941 명(신입생 기준)으로 증가한다.

(1) 教育課程 現況

教育課程을 設問調査와 大學 要覽 등을 통해 알아 본 결과 다음과 같았다.

먼저 設問調査 結果(40개 大學에 대한 設問 結果 응답자는 32개 大學이었음)는 ① 졸업 이수 학점 중 경제학 과목의 비중이 45~55%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② 전공 필수 과목 수는 8개 과목이 가장 많았다(19개 과목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었음). ③ 전공 선택 과목 수는 대개

20개 과목 이하였으며(응답자 중 37개 과목을 개설하는 대학도 있었음), ④ 교과과정에 있어 先修·後修 제도를 반반씩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의 경우, 응답자에 따라서는 경제학과 이외의 과목(예를 들어 경영학원론, 무역학원론, EDPS 등등)을 포함한 경우도 있어 상대적 신뢰성은 낮다고 하겠다.

한편, 각 대학 발행의 大學要覽('86년 이후 발행된 것으로 필요에 따라 '88년 1학기에서 '89년 2학기의 강의 시간표를 수집·활용하였으며, 대상 대학 수는 50개 大學이었음) 등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았다.

① 먼저 대학 요람에 나타난 科目 수는 총 1,605개(이 경우 經濟學 科目 이외의 것은 전부 제외하였음)로 평균 32개 敎科科目을 개설하고 있다.

② 大學別 敎科目 數의 分布는 26~35개 과목을 전공 이수 과목으로 개설하는 경우가 68%에 해당하는 34개 大學이었다. 가장 적게는 19개 과목, 가장 많게는 46개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③ 대학에 따라서는 經濟學特講, 經濟學 세미나 등의 과목과 經濟學練習 등을 3~7개 開設하고 있거나 經濟史 및 經濟學說史 과목들의 비중이 25%를 상회하는 경우도 있었다.

(2) 敎科內容의 전달

設問調査에 의하면, 대부분의 대학이 理論中心으로 강의 교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보조 교육 수단으로 연습 문제 풀이를 활용(응답자의 34%)하거나, 수시로 시험을 부과(응답자의 63%)하고 있었다.

한편, 경제학 과목의 강의에 있어 수리적 접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31%에 해당하는 대학이 數理的 接近方法으로 강의를 하고 있으며, 63%가 필요할 경우 數理的 方法을 사용한다고 하여 경제학과에 있어 數學(내지 統計學)의 중요도가 높음을 보였다.

(3) 政治經濟學 관련 科目

최근 들어 고조되고 있는 政治經濟學¹⁾에 대해

1) 우리나라에서 최근 쓰이고 있는 이 用語의 뜻은 不分明하나, 學生들은 '마르크스 經濟學'으로 풀이하고 있으며 이 講座의 開設과 담당 교수 채용을 요구하고 있다.

각 대학의 現況과 計劃은 다음과 같았다.

① 먼저 각 대학의 요람에 나타난 政治經濟學 및 그 관련 科目에 대해 살펴 보면, 政治經濟學, 各國 經濟論, (所得)分配論, 民族經濟論, 現代 資本主義論, 社會主義經濟學, 經濟變動論, 比較 經濟制度論, 經濟體制論 등을 개설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과목명은 통합 조정에 의해 실제 각 대학에서 개설된 科目名과 다를 수 있음) 經濟變動論이 34개 大學으로 가장 많았고, 政治經濟學과 (所得)分配論²⁾이 9개 대학에서 강의·개설되고 있다. 여기서 比較經濟制度論과 經濟體制論은 政治經濟學 科目과 성격은 조금 다르다고 해도 포함하여 고려하였다.

② 설문 조사에 나타난 실제 상황을 살펴 보면, 먼저 政治經濟學 科目 등에 대해 응답자 32개 大學 중 44%에 해당하는 14개 大學에서 1~3개 과목을 개설하고 있었다. 현재 이들 과목의 강의를 개설하고 있지는 않으나, 앞으로 개설할 계획이 있느냐에 대해 11개 대학에서 개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한편 5개 대학에서는 앞으로 이 科目에 대해 개설할 의사가 없다고 하였다.

③ 한편 政治經濟學 관련 科目을 개설한 대학에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으로서 政治經濟學 科目이 저학년에서 개설된 경우 학생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위 운동권 학생들을 제외한 一般學生들의 경우 이에 대한 수강을 기피하고 있으며, 科目의 특수성으로 여타 다른 과목과의 연계성이 갖추어지기 어렵고, 政治經濟學의 후속 과목들에 대한 강좌 개설이 여건상 불가능하며, 자격이 있거나 해당 분야에 정통한 교수 요원을 확보하는 데 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④ 또 政治經濟學 관련 科目에 대해 앞으로 개설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대학에서 제시한 이유는 교수 확보의 어려움과 기존 교과 체제와의 상충을 난점으로 지적하고, 해당 교과와 교재 빈곤을 거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들 과목의 내용을 기존의 敎科課程—經濟體制論, 比較經濟制

度論, 經濟變動論, 經濟學說史 등—내에서 政治經濟學의 觀點을 충분히 다룬다면 政治經濟學이라는 이름의 科目을 개설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4) 進路指導 및 就業 現況

학생들의 졸업 후 進路에 대해 학교 당국 내지 學科에서 별도의 進路指導를 하는 경우와 학생 자신에게 맡기는 경우가 설문 조사의 결과에서는 거의 半半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지도를 별도로 하는 경우는 대개 地方大學으로 대학 입학 경쟁보다 더 심각하고 치열한 것이 취업 경쟁이라 밝히고 있다. 社會進出의 機會가 서울로 몰려 있어 각 지역에서 교육된 專門人力이 서울로 逆流出되는 현상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敎科의 授受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들 한다. 이에 따라 地方大學의 機能인 地域 社會에 대한 기여는 점점 더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었으며, 오히려 실망과 좌절을 남게 하여 국가 전체로 보아 낭비가 크다고 하겠다.

2) 經濟學科의 여러 問題點

經濟學科의 敎育이 안고 있는 問題點을 지적함에 있어 각자의 價値判斷이나 視角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고 하겠으나 대략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① 먼저 교과과정에서 경제학과의 전공과정의 개설 과목 수가 많기 때문에 혼란과 중복 敎育, 지나친 專門化, 現實과 知識의 乖離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經濟學 敎育課程의 전체적인 體系와 졸업 후 학생들의 지속적 研究 및 活動 등을 고려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교수들 자신이 전공하였거나 관심이 있는 分野를 위주로 敎科編成이 이루어진 결과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經濟學特講, 經濟學練習, 經濟學 세미나 또는 特定 分野의 特講 形式의 科目 開設이 많은데 이들 科目들은 새로운 분야를 본격적으로 교과목에 올리기 전에 시험적으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과목 운영에 신축성을 부여한다는

2) (所得)分配論은 近代經濟理論에서 설명되어지는 所得分配論과 소위 마르크스 經濟理論에서의 分配論을 통합한 것임.

점에서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역시 교수진의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교과목이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점으로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유념하여야 한다.

② 敎育의 대부분이 理論中心으로 또 講義에 의해 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현실의 대학교육이 理論中心의 講義로 말미암아 학생들이 經濟를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거나 아니면 경제학에 대해 무관심을 빚어낼 우려가 있다.

③ 地域社會에 대한 大學의 기여가 부족한 점이다. 이는 經濟學科만이 지닌 문제가 아니라 우리 大學全體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大學敎育이 社會的·時代的·地域的 적합성이라는 맥락에서 적절히 그 機能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高等教育機關으로서의 大學敎育 내지 經濟學科의 敎育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④ 經濟學科 敎育에 있어 또다른 문제점은 敎育施設이나 敎育環境이 劣惡하다는 점이다. 아직도 學科 사무실이 없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學科會議室을 마련하지 못한 大學이 많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대부분의 大學에서 學科 도서실 내지 독서실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시간의 절약과 독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學科 圖書室 내지 독서실이 갖추어져 전공 서적들을 보관·비치해 학생이나 교수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오늘날 대학 도서관이 학생들의 自習室化되거나 취직 시험을 준비하는 장소로 변모되었다는 점에서 각 學科別 圖書室은 그 중요성이 높다고 하겠다.

⑤ 敎育效果를 높이기 위해 講義 이외에도 여러 補助手段들이 敎科 授受에서 활용되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條件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敎授는 學生을 가르치는 敎育者의 직분과 學問의 새로운 邊境을 개척해 나아가는 研究者의 직분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研究 및 行政助敎가 보다 많이 요구되는데, 오늘날 우리 大學들의 실재는 學校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매우 不充分하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經濟學科의 敎育에 있어서 산적해 있는 問題點들의 일부를 예시해 보았다. 모든 大

學의 經濟學科에서 가르치는 科目 및 그 敎科의 內容이 바로 그 대학, 그 학과의 얼굴이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모두가 동일한 얼굴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이며, 大學마다 特性있는 敎育을 시도하는 노력이 기대된다.

그러나 크게 보아 모든 大學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經濟學科 敎科課程의 발전 방향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國民經濟의 오늘과 내일에 비추어 요청되는 敎育 및 研究課題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떠한 과목을 개설하고 어떤 내용으로 교육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또한 이러한 敎育이 가능하려면 敎育 및 研究 條件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에 우리의 努力을 집중해 나아가는 것이다.

3. 經濟學科의 敎育方向 摸索

經濟學科의 敎育目標을 학생들에게 總體的인 經濟社會問題의 認識과 더불어 그 解明을 위해 과학적 분석 수단과 양식있는 價値判斷을 갖추기 위한 소양과 지식을 함양하는 데 있다고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 사회에 있어 당면한 經濟問題의 本質을 이해하고 이를 客觀的으로 분석하여 건전한 民主市民으로서 해결 방안을 찾는 能力과 資質을 갖추도록 하는 데 經濟學科의 敎育 목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학과의 敎育 방향에 대한 大綱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현대 경제 이론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초 이론 敎育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② 현실 경제 문제를 論理的으로 분석하고 그 해결 방안을 추구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代案들을 비교·검토하여 最善(the first best) 또는 次善(the second best)을 가려낼 수 있는 能力을 길러주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特定한 理念이나 學派에 偏向된 敎育은 삼가하여야 할 것이다.

③ 우리 나라의 문화 전통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현실 경제 문제에 접근하는 자세를 길러주는 敎育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한 經濟學科 敎育課程의 基本方向 및

運用에 대한 골격을 생각해 보면 아래와 같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試案임을 밝혀둔다.

1) 敎育課程 編成의 基本方向

① 현재 각 대학에서 140 學點 이상 이수를 졸업 학점으로 규정하고 교양 과목·전공 과목·일반 선택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는 수용하는 것을 前提하기로 한다.

② 전공 과목에 대한 調和와 均衡을 위해 專攻基礎科目·專攻必須科目·專攻選擇科目으로 區分하고 서로 명확한 目標과 機能을 갖도록 한다.

③ 專攻基礎科目은 專攻(必須 및 選擇)科目의 이수를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으로 經濟學科 학생이면 누구나 이수토록 해야 할 科目으로 지정한다.

④ 專攻必須科目은 다양화된 經濟學의 성격상 專攻의 각 영역을 총괄하는 것으로 經濟學科 학생이면 꼭 이수해야 할 科目으로 한다.

⑤ 專攻選擇科目은 專攻必須科目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분야를 앞으로 專攻할 학생에게는 세부 전공을 위한 기초가 되는 科目으로 한다.

⑥ 敎科科目에 포함되는 과목은 적어도 그 理論이 定立된 科目이어야 할 것이다.

⑦ 敎科科目 중 비학문적이거나 직업 교육적 성격을 가진 과목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교수들의 세부 전공 분야에 부합된다거나, 학생들의 일시적 취향에 영합하는 내용의 과목 위주로 敎科課程을 편성하는 것을 지양한다.

⑨ 외국의 학문 발전 추세는 가급적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를 가능하면 기존 과목 명칭 하에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과 같은 基本方向을 설정하여 經濟學科 敎科課程 運用의 골격을 구상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經濟學科 敎科課程 編成의 골격

① 현행 문교부 지침으로 설정된 졸업에 필요한 이수 학점 140 학점을 그대로 유지한다.

② 經濟學科에서의 교육 이수가 일정한 수준의 專門人을 양성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으

므로 基本的인 科目은 필히 이수토록 한다.

③ 大學 學部の 敎育課程에서 專攻과 敎養(일반 선택 포함) 어느 쪽도 소홀히 하지 않고, 균형있게 하여 大學敎育이 지향하는 全人敎育에 부응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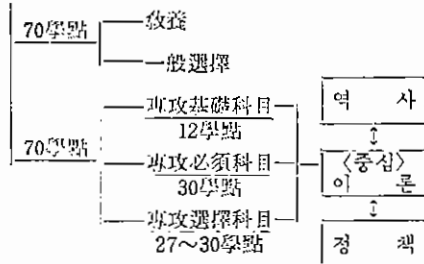
④ 經濟學科 敎育內容에 있어 理論을 中心으로 하되 歷史와 政策의 중요성을 配慮하여 조화와 균형을 기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敎科課程 編成의 基本 골격을 갖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물론 그 내용에 대하여 異見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나, 이는 設問調査·要覽 등의 資料 및 面接調査 등에 의해 얻은 意見을 종합하여 一般化한 것임을 밝혀둔다)(〈표 1〉참조).

①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 학점 140 학점 중 50%에 해당하는 70 學點을 전공 과목에 배정한다.

〈표 1〉 經濟學科 敎科課程 編成의 골격(試案)

卒業 必要 이수학점 140 學點



② 專攻基礎科目은 專攻必須科目을 이수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 또 이들 科目이 현실적으로 각 大學 經濟學 科目으로 開設되고 있는 과목에서 經濟學原論 I, II 및 統計學, 經濟數學으로 設定할 수 있을 것이다.

③ 專攻必須科目은 專攻基礎科目을 바탕으로, 또 專攻選擇科目과의 연결적 요소를 고려해 각 大學에서 必須科目으로 공통적으로 開設하고 있는 科目에서 微視經濟學, 巨視經濟學(經濟政策 포함), 計量經濟學, 貨幣金融論(또는 金融經濟學), 財政學(또는 公共經濟學), 國際經濟學, 經濟史, 經濟學(說)史, 韓國經濟論 등 9 科目을 설정할 수 있다.

④ 專攻選擇科目의 경우, 각 大學 經濟學科의 選擇科目 開設 內容을 고려해 經濟發展論, 勞動

〈표 2〉 專攻科目의 이수 시기와 학점(예시)

학 년	1 학 기			2 학 기		
	과 목 명	학점	시간	과 목 명	학점	시간
1	경제원론 I	3	3	경제원론 II	3	3
	통계학	3	3	경제수학	3	3
2	미시경제학	3	3	거시경제학	3	3
	계량경제학	3	3	경제사	3	3
3	화폐금융론	3	3	재정학	3	3
	국제경제학	3	3	경제학(설)사	3	3
	경제발전론	} 택 3	각 3	} 택 3	} 각 3	3
	수리경제학					
	근대경제사					
	비교경제제도론					
한국경제론	3	3	한국경제론	3	3	
지역·도시경제학	} 택 2	각 3	} 각 3	} 각 3	3	
농업경제학						
한국경제사						
4	경제정책	3	3	노동경제학	3	3
	지역·도시경제학	} 택 2	각 3	} 각 3	} 각 3	
	농업경제학					
	한국경제사					

經濟學, 産業組織論, 農業經濟學, 韓國經濟史, 數理經濟學, 國際金融論(또는 國際收支論), 經濟變動論, 比較經濟制度論, 地域·都市經濟學, 近代經濟史, 厚生經濟學 등을 選擇科目으로 設定할 수 있을 것이다. 專攻選擇科目의 경우 消費者인 學生에게 어느 정도의 選擇權을 부여해 이중 9~10科目을 選擇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본다.

⑤ 上記科目들에 대한 학점 및 이수 시기를 예시하면 위의 〈표 2〉와 같다.

4. 글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각 대학 經濟學科의 教科課程을 중

심으로 개괄적인 現況과 問題點을 살펴 보고, 나름대로의 教科課程 編成에 대한 하나의 方向을 모색해 보았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경제의 변화가 가속화되어 정치·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 아울러 우리들 모두가 변화 속에서 스스로 변모되어 가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들이다. 經濟學이 가설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통해 가설의 타당성을 확인 또는 수정하는 작업의 연속이라 할 때, 이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잠정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보아 수정되어야 마땅하다. 이 글이 우리나라 대학의 經濟學科 教育發展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다. *